불기 2569년 연등회

사진=신중일 · 김내영 기자

불기 2569년(2025년) 연등회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전통불교문화축제임을 세상에 보여줬다.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종로 조계사까지 이어진 10만 연등행렬은 내국인과 외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를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법석이기도 했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친 해를 기념해 행렬 선두에 어린이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선두에서 연등을 손에 든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한 미소로 행렬하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5만여 명이 만들어낸 10만 연등 물결로 세계는 자비가 넘치는 불국정토를 이뤄냈다. 서울 종로 일원에서 펼쳐진 연등회의 모습을 화보로 꾸몄다.



4월 26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어린이 불자들이 선두로 행진을 하고 있다.

10만 연등 아래 하나 된 세계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이사장 도심 스님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총동문회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